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서암저수지 부유물 제거로 안전한 농업 및 식수 공급에 앞장

농업용수와 식수 겸용 저수지, 양질의 용수 공급 및 수질개선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의령지사(지사장 이주현)는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서암저수지의 수질 관리를 위해 저수지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암저수지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수원이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잡목, 생활 쓰레기 등 부유물이 저수지로 대거 유입되어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령지사는 부유물 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더불어 의령지사는 제거된 부유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현 지사장은 "서암저수지는 농민들의 농사에 필수적인 용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이라며, "이번 작업이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질 관리 활동을 통해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령지사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물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